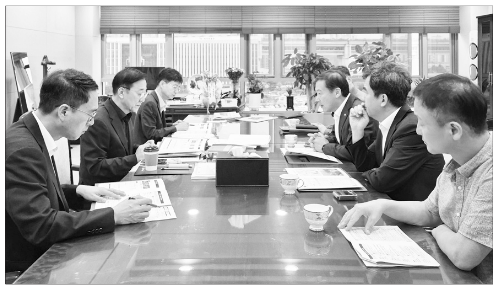
진안 미래 성장동력 확보 최선

전춘성 군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지원 요청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8일 오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진안군 전 분야 핵심 사업에 대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의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 군수는 지난 8일 오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진안군 전 분야 핵심 사업에 대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전 군수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농업의 핵심축이 될 신광재(지덕권) 산림약용작물 특화산업화 단지 조성에 대해, '세계 바이오산업 규모가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산림약용작물 융, 복합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국가 단위 거점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공모 사업 선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며,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병행하여 재생에너지 공동이용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농업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핵심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전 군수는 진안군을 전북 동부권의 교통 허브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통 기반 확충 사업들을 최우선으로 건의했다.

먼저, 지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국도 26호선(전북 진안~완주 소양, 698억원) △국도 26호선(전북 진안~장수, 817억원) △국도 30호선(진안 백화~삼락, 360억원) △국지도 49호선(진안 상전~동향, 290억원) 3개 도로 개량 사업에 대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과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국도 26호선(전북 진안~완주 소양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의 안전성과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26년 건설계획에 반영되는 즉시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영호남 내륙을 잇는 '전주~김천 간 영호남 내륙철도 사업'에 대해서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사업이 실현되면 진안군이 동부 내륙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와 함께 '전주~무주(진안 경유) 고속도로'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는 지역 관광 활성화 및 물류 유통망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교통 인프라 및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사업들인 '군하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과 '제2차 공공기관 인구감소지역 우선 이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군하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은 군하리 일원에 주민건강센터조성, 마을쉼터, 경로당 리모델링 등 기초 생활 인프라를 공급해 주민 편의와 공동체 활동 공간 등을 제공하는 사업(총사업비 170억원)이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의 미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면담을 계기로 진안군의 교통 인프라와 지역 기반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이번 건의안이 실현되면 산림·농업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과 전북 동부권 전역에서 도로망 확충, 산업·관광 활성화, 물류 유통망 개선 등 다방면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반딧불 전국 천마요리대회' 개최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와 함께하는 '2025 무주 반딧불 전국 천마요리대회'가 9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됐다.

(사)무주천마사업단이 주최하고 ㈜다이어리알이 주관하며 무주군이 후원한 이날 대회는 무주지역의 대표 먹거리 '천마'를 전국에 알리고 일상 속 식재료로서 '천마' 활용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조리법 사전 심사'를 거쳐 선발된 무주군 지역 내 외식 업소뿐만 아니라 조리 전공 고등학생 및 대학생, 그리고 60대 일반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20개 팀이 참가해 '천마' 요리 실력을 겨뤘다.

참가자들은 오방삼계탕, 크림피자, 바질크레마 등의 요리를 조리해 무주 천마의 다양한 맛과 멋을 선보였다.

이날 대회장에서는 천마요리대회 외에도 식전 행사로 '천마 아이스크림' 및 '천마 가공품 시식 및 증정', '천마 맛집 홍보'의 시간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안현민 쉐프 초청 요리 시연' 행사도 펼쳐져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경북·충북 3도 만났다

무주군·김천시·영동군 3시·군 문화교류 화합행사 무주서 개최

전북 무주군과 경북 김천시, 충북 영동군 문화 가족들이 9일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현장에서 만났다.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문화원이 주관한 제25회 3시·군 문화교류 화합행사로, 맹갑상 무주문화원장과 이기양 김천문화원장, 백승원 영동문화원장을 비롯한 각 지역 문화원 회원 230여 명이 함께 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오광석 무주군의회의장, 윤정훈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등 내빈들이 함께 한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은 각 시군 문화를 교류하며 우의를 돈독히 한다는 내용이 담긴 3도 협약서 내용을 공유하며 이날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사람도 지역도 함께 할 때 지속 가능한 힘이 나온다"라며 "삼도봉을 중심으로 연을 맺고 있는 3시·군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상생을 도모해 갈 수 있도록 무주가 가진 역량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김천시에서 준비한 '난타 공연'과 영동군의 '통기타', 무주군의 '소고춤'과 '국악예술단 시엘 초청공연'이 펼쳐져 호응을 얻었다. 회원들은 '반딧불이 주제관' 등 무주반딧불축제 현장과 머루와인동굴 등 무주지역 명소 탐방의 시간도 가졌다.

맹갑상 무주문화원장은 "3도 3시·군이 2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면서 화합과 교류의 방식은 바뀌었지만 지역 경계를 넘어 상생으로 가는 연대의 마음만은 변함없이 이어오고 있다고 믿는다"라며 "조선 472년 역사를 300여 년간 지켜낸 실록의 고장다운 면모로 3도 문화를 지키고 꽃 피울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생활문화예술동호회, '달빛축제' 성료

장수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하 생문동)가 지난 6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장수시장 무대에서 개최한 '달빛축제'가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생문동이 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장수군이 후원했으며, 가을 정취를 담은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으로 지역민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무대에서는 색소폰과 통기타 연주, 시낭송 등 차분한 분위기의 공연과 지역 예술 동호회가 참여한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져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프리마켓이 열려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품이 전시·판매됐다. 가방, 뜨개 소품, 도예품, 캘리그라피 소품 등 정성이 담긴 수공예품이 선보여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았으며, 사과주스와 막걸리, 국수, 계란빵 등 다채로운 먹거리 부스도 함께 운영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열려

진안군은 9일 진안고원치유숲에서 '20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위원회 간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진안군 및 12개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과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해 추진됐다.

진안군은 강사를 초청해 진안군 주민참여예산의 변화와 발전, 신규사업 제안 및 우수사례 등을 기반으로 군의 지난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를 돌아보고 개선사항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성인지 시청각교육도 함께 실시해 의사 결정 시 성인지 관점이 반영된 위원회 활동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교육 실시

진안군은 9일 군청 상황실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진안군이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된데 따른 것으로,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서 간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농촌 활력과 등 관련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와 무주장수진안지사 돌봄 통합지원팀의 협조로 진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상수 대리가 강사로 나서 사업 개요와 운영절차를 설명하며 전반적인 이해를 도왔고, 이어서 전산 활용 교육이 진행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계남면, 제111회 계남향약 정기총회 개최

장수군 계남면은 조선시대 향촌 자치규약인 '향약'을 이어오고 있는 계남향약(약장 양남철)이 지난 8일 계남면종합복지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최훈식 장수군수와 최한주 군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박용근 도의원을 비롯하여 기관사회단체장과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85세 어머니를 정성으로 봉양하며 경로 효친 사상을 몸소 실천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화양리 명동마을 류인용 씨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또한 이번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현재 향약장 임기가 만료됨으로, 차기 향약장으로 허기태 부약장이 향약장으로 추대되었으며 임기는 3년이 된다.

양남철 약장은 "계남향약은 110년 넘게 우리 고장의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도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사회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약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